

데스크 시각



박치경
서울취재본부 부분부장

‘안심(安心) 공천’ 논란으로 광주가 들쭉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선거에 윤장현 후보를 전략공천하면서다. 지난주 금요일 심야의 충격 공천 파장은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의 탈당 선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현실정치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뛰어들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정치 생명도 함께 걸려있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안 대표로서는 서울시장·대통령 후보 양보와 노원병 보선출마는 몸 풀기나 마찬가지였다. 안 대표가 민주당과 합당한 것을 정치권의 정식 입문으로 여겨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서울시장·대선 후보에서 물러난 것이나, 노원병 출마까지는 단기필마였던 안 대표가 스스로 결정해 단행한 ‘혼자만의 정치’였다면, 새정치민주연합 합당은 당내·외에서 상호 작용을 해야하는 시발점인 만큼 비로소

안철수, ‘산 정치’ 하려면

본격 정치생활이 시작됐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강 시장과 이 의원에 비해 유권자의 지지도가 낮았던 윤장현 후보를 전격 공천한 것은 안 대표의 당내 정치 시동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안 대표가 광주에서만큼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광주시장 선거 최대 변수

합당 과정에서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간 어떤 내용의 줄다리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장난 배’에 견주어졌던 민주당으로서 안철수라는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이행한 것 아니냐고 추측할 뿐이다. 참여자21은 “지난 4월13일 지역 국회의원 5명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서부터 이번 발표까지를 보면, 안철수 뜻으로 광주시장이 사전에 배정되었다는 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제 광주시장 후보문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광주시민, 유권자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일 뿐이다. 하지만 안 공동대표가 광주시장 선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묘수는 얼른 보이지 않는다.

공천 이전부터 무소속 단일화 카드로 중앙당을 압박했던 강운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내릴 선택이 현재로서는 미지수이지만 두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윤장현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럴 때 중앙당이 동원할 선거방법은 간단하다. 당의 조직을 풀고동하고, 전폭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민들로서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익숙하게 보았던 모습이다. 윤 후보가 고전한다면 옛 테이프를 다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광주시민들의 정서가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해 예전과는 같지 않다는 얘기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안 대표가 광주를 자주 찾더라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과거 DJ가 ‘막대기 공천’을 하고서도 선거 막판 한 번만 슬고 가면 불표를 던졌던 시절의 광주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6·4 지방선거가 29일 남긴 시점이기에 여론의 변화를 상정할 수도 있다. 전략공천이 무소속 당선이라는 대안란으로 이어진다면 새정치연합 지도부나 안 공동대표에게 치명타가 된다는 점 역시 시민들이 염두에 둘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대통령선거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상환을 호락호락하게 볼 수만은 없다.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안철수가 큰 정치인으로 가는 갈림길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전략공천이 어떤 식이든 자신의 귀책사유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새 정치의 가치를 실현할 사람이고, 광주의 ‘박원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공을 들여도 시민들이 아니라면 달리 도리가 없다.

정치생명 민심에 달려있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50년 동안 숙성된 정치인이었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혜성 같이 등장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호남을 기반으로 민의를 좇는 반전을 통해 민중을 휘어잡았다.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다 손가락질 받은 적이 있었지만, 중국에는 대외와 명분을 따랐다. 정치의 종결자는 곧 ‘민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 못 미쳐 광주시장의 향배도, 안철수의 정치 운명도 결정된다. 광주의 민심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를 사로잡으려면 전략공천에 대한 명쾌한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 한다. 안 대표가 ‘내 사람 심기’라는 의혹을 지우려하기 보다는 인정할 것인 인정하고, 이를 설득력 있게 개진하는 것만이 새 정치는 아니더라도 ‘산 정치’가 아니겠는가. 그게 곧 광주 시민들의 주문일 것이다. /unipark@kwangju.co.kr

은편칼럼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세월호 침몰 사고 추모 여파로 전국적으로 4월, 5월, 6월 축제 행사에 공인들이 거의 모두 취소되었다. 지금 5월초 행사장에서는 한창 각설이 타령이 흘러나오고 웃음꽃이 넘칠 시기지만, 이마저도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 밝은 햇빛에서 숨쉬기도 미안한 시기, 뉴스 속에 나오는 에타는 구조 소식에 가슴 속에 눈물만 흐른다. 아무리 각설이가 신나게 떠든다고 한들 웃음이 나오겠는가. 한편으로는 전국의 각설이 공연자들이 이리다 정말 알리지 되겠다는 걱정도 된다. 그동안 여러 각설이를 만났다. 그중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 교도소 위문공

각설이와 깡통, 그리고 사랑의 릴레이

연을 간적이 있는데 교도소 수용자 중에 각설이 한 분이 계셨다. 이분이 직접 각설이 공연을 하시면서 교도관들을 모두 일코세워서 “좌향좌 우향우, 앉아, 일어서”를 시키는 것이다. 교도관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리었지만, 각설이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각설이 시키는대로 하자 수용자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각설이는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위해 정말 고생들이 많으시다고 이분들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달라고 하자 수용자들은 박수를 쳤고, 교도관들은 모자를 벗어 수용자들의 박수에 웃으며 담례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교도소에 수용 중인 각설이가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고 화합의 한마당으로 이끄는 감동의 순간이었다. 또, 장성의 한 행사장에서는 각설이가 재미있게 공연을 하니가 청중들이 돈을 깡통에 집어넣으려고 우르르 몰려오는 것이다. 그러자, 각설이는 깡통에 돈 넣을 사람 줄 서라고 하자 청중들은 줄을 서서 깡통에 돈을 넣는 것이다. ‘불효자는 옹니

다’ 노래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눈물을 속 빼는 각설이, 대학을 나왔는데 삼정교육대를 나왔다고 하는 각설이, “참새 짹짹 병아리는 빼야빼야” 하면서 청중들과 소통하는 각설이도 있다. 최근 광주의 모 복지기관에 건설회사 CEO밴드팀과 함께 위문공연을 간적이 있는데 필자도 처음으로 각설이 분장을 하고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해 보았다. 그동안 눈으로만 보다 직접 해보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내 자신이 정말 행복했었다. 각설이 공연 대비를 위해 유튜브에 올라 다양한 각설이 공연을 보고 연구해보니 각설이 세계는 무궁무진했다. 시대를 풍자하고 인생을 풍자하는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장구치고 색소폰 부는 각설이, 뉘우 민요 트로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섞어서 부르는 각설이 등, 각설이가 처음 생기기 된 것은 백제가 평壤했을 때 몰락한 귀족들이 생존을 위해 장타령을 부르며 생존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도 있고, 임진왜란 때 부상당한 사람들이 노래

를 부르며 바가지와 들고 나섰다는 이야기도 있다. 각설이의 원리는 돈을 구하되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연을 하여 감성을 울려서 댓가를 받아 낸다는 것이다. 필자가 각설이에 도전을 하니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워한다. 그러면서 공연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고, 각설이 못 구해주는 분, 깡통 구해주는 분, 고무신에 제피되는 글씨 써주시는 분 등 관심을 보여주신다. 전문 각설이 공연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다양한 각설이 공연을 연습하여 각설이 공연 페스티벌을 열어 깡통에 기금을 모아 바로 현장에서 좋은 일에 기부를 하는 ‘각설이 깡통 기부문화 공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깡통 속에 피어나는 사랑의 릴레이를, 침몰한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축제 행사장에서 생각해 본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고싸움전수관, 박물관으로 육성하자

시에 광주시 남구 칠석동에 소재하는 고싸움전수관의 모습을 떠올렸다. 사실 기지리 줄다리기는 인근 4~5개 면단위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지역단위’의 놀이라면 칠석동 고싸움놀이는 ‘마을단위’의 놀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00호 남짓의 자연마을에서 이처럼 거대한 민속놀이를 연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로 놀라운 생산력의 산출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초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국풍81’ 축제에서 처음 전국에 알려질 정도로 후발주자인 기지리 줄다리기가 단순히 예능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역할의 전수관의 단계를 뛰어넘어 관련 유물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전시하고 관람객 대상의 사회교육과 민속놀이분야의 연구기능까지 갖춘 박물관으로 육성시켰다는 것은 전공학자와 지역민, 관계자들의 헌신적 열성과 노력의 결과물로 보여진다. 이와 대비하여, 우리지역의 고싸움전수관을 하루속히 고싸움박물관으로 육

성하여야 할 당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싸움과 줄다리기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즉 도작문화권(稻作文化圈)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서 온전한 형태의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속놀이에는 우선순위를 기원하는 용(龍)으로 표상되는 줄의 상징적 의미도 담겨있지만, 단기간의 노동집약적 작업이 요구되는 벼농사의 특성상 마을사람들 간의 필수적인 덕목이 단합과 협력이라는 사실을 표출하기도 한다.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전체 마을 주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민속놀이축제를 벌여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아울러 앞으로 전개될 농사일에 있어서 협동을 예행 연습해보는 것이다. 협동놀이가 줄다리기가 한층 조직화되고 고도화된 것이 고싸움이라고 보았을 때, 소중한 향토문화자원인 고싸움의 원형을 제대로 보존·계승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적인 방안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은 실로 자명해진다. 다음으로,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기

반시설의 광범위한 확장자원에서도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기본 요건으로 일정한 규모를 갖춘 박물관과 도서관이 대략 인구 10만 명에 1개의 기준으로 설립·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이지만 수도권지역에 비하면 공·사립박물관의 수효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항이라는 전남지역에서도 시군단위에서 제대로 된 공공박물관을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한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지역박물관과 특정한 테마나 자료를 보여주는 전문박물관들이 다수 설립되어야 지역의 정체성 보존과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박물관은 문화와 전통을 보존·계승하는 중요한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물창고이다. 이제 지역민들이 단합하여 남도 민속문화의 전당으로 육성해야 할 고싸움박물관을 건립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김형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지난달 초에 광주민속박물관회 회원들과 함께 충남 당진에서 개최된 ‘기지리리 줄다리기축제’를 참관하기 위한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지난 2010년 설립된 근사한 위용의 기지리줄다리기박물관을 비롯하여 화려하게 꾸며진 축제행사장, 축제장의 한켠에 세워진 거대한 크기의 용줄, 수많은 내외관객들을 둘러보며 큰 부러움과 동시에 극렬한 자괴감이 밀려왔다. 줄다리기박물관은 아담한 2층 규모의 작은 박물관이었지만, 여러 유물과 설명 자료를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배치해 진열하고 있었다. 전시실을 관람하면서, 동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시민의 몫이 된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6·4 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윤 후보가 진정성이 있고, 새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광주 시민의 바람에 가장 부합하다는 게 이유이다. 이에 후보 경쟁에 나섰던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는 데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 행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강 시장과 이 의원은 3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성치광주를 모독한 반민주적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지역 정치권이 흔들리면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당은 그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모양새는 썩 좋지 않다. 물론 당 지도부의 주장대로 윤 후보가 새 정치의 가치를 실현할 사람이고, 광주의 ‘박원순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새 정치의 완성을 위해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경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공천은 당원과 시민의 참정권 배제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대다수 유권자가 동의할지 의문이다. 현 상황에서 강 시장과 이 의원이 단일화를 할지, 각기 무소속으로 출마해 윤 후보와 함께 3파전이 될지 두고 볼 일이나 우려되는 것은 여론 분열과 같고이다. 한편으로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강 시장과 이 의원이 윤 후보보다 상당한 차이로 앞서 있었던 만큼 흥미로운 게임도 예상된다. 또한 무소속이 당선되는 대안란이 일어난다면 당 지도부와 함께 안철수 공동대표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며, 광주에서 무소속이 시장에 선출된 예가 없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의 선거가 전개되든 과열과 불·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다면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잠수사 또 다른 희생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1명이 선체 수색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수색작업이 21일째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잠수사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민간 잠수사 이모(53) 씨는 세월호 5층 가이드라인 설치작업을 위해 기존 잠수인력과 대체되어 투입됐다고 한다. 이 씨는 수심 25m 지점까지 내려갔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며, 이후 통신이 끊겼다. 해군 잠수요원들이 이 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이 씨는 헬기를 통해 긴급 후송됐으나 병원 도착 20여 분만에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 씨가 이번에 변을 당한 것 역시 세월호 잠사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안전대책 등으로 인한 또 하나의 인재라는 지적이다. 이 씨의 희생은 구조작업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실종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희생자의 시신을 수습해 온 잠수사들의 활동 여건 등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대비책이 얼마나 허술했는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바지선으로 올라진 뒤 20분 가량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가는 헬기에 탈 수 있었다. 바지선에서 900m 떨어진 곳에 군의관이 배치돼 있었지만 의료진이 투입되기까지는 7분이 걸려 천급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현재 잠수사들이 머무는 바지선에는 갑갑 체임버 위에는 의뢰인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군의관이 있고 수술실 등을 갖춘 청해전함 등을 적극 활용해 비상사를 막아야 한다. 막바지 수습에 나선 잠수사들에 대해 철저한 건강 체크와 휴식 기간이 휴식을 취하게 함으로써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실종자 수색도 중요하지만 잠수사들의 또 다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그럴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렇다니 조금은 실망이다. 전세계 바이올린 중에서 최고의 명기(名器)라는 스트라디바리우스, 파르넬리 이야기다. 얼마 전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 파르넬리라는 게 일치된 주장이지만 실력 있는 연주자들마저 명품 바이올린의 소리를 구분해내지 못한다”고 보도했다. 음악계에서는 5000만 원대의 최신 바이올린도 성능이 좋기는 하지만, 수십~수백억 원대의 전설적 명기(名器)는 비할 바가 못된다는 통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실험 결과는 달랐다. 사례로 제시된 실험 결과 중 지난 2010년 프랑스 ‘피에르 앤드 마리 퀴리 대학’에서 진행했던 실험은 충격적이었다. 유명 연주자 21명의 눈을 가린 채 최근 만들어진 바이올린 3개와 스트라디바리우스 3개를 각각 놓고 가장 마음에 드는 악기를 고르도록 했더니 무려 13명이 최신 바이올린을 선택했다. 최근 국립과학아카데미 회보에 실렸다는 새로운 실험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명기 6개와 새 악기 6개를 놓아둔

뒤 선호도를 살펴봤다. 10명의 전문 바이올린 연주자가 참여한 이번 실험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10명의 연주자 모두 새 악기가 더 낫다고 평가했다. 심지어 일부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인 줄 알고 골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간에는 명기와 신에 병기를 비교하는 것을 두고 ‘명기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무조건 과거의 명품 악기가 최고’라는 주장은, 마치 조선시대 발명된 비격진 천뢰(飛擊震天雷)가 지금의 최신 수류탄보다 낫거나 신기전(神機箭)이 오늘날의 미사일보다 정확하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선거가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야기 한 번, 악수 한 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인물을 ‘단체장’으로 선택하자니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다. 옛 명성이 나 현재의 지위, 끈구름 같은 세간의 평가를 기준 삼아야 하는 현실도 불만이다. 바이올린의 가치와 성능은 블라인드 테스트로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진면목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답답하다. /홍형기 경제부장 redplane@

명품 악기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광고문의 062-227-960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